

## 출생아 늘었다... 진심이 통했다

전남 9개 시·군, 올 1~11월 출생아 지난해보다 '두 자릿 수' 상승  
나주, 하루만 살아도 출산장려금·난임시술 지원·연중 무휴 보육  
하순, 청년에 만원 아파트 ... 강진, 육아수당 월 60만원 '전국 최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광주·전남 자치단체들의 몸부림이 계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출산장려금과 '만원 아파트' 등 청년·신혼부부 정책을 펼친 일부 지역이 인구가 느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19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 1~11월 강진과 나주, 하순 등 전남 9개 시·군의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두 자릿 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남 전체의 출생아 수는 7493명에서 7391명으로, 100명 넘게 감소한 것에 비하면 놀라운 결실이라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강진군의 올해 출생아 수는 14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85명)보다 69.4%(59명) 급증했다. 나주시의 출생아는 전년보다 5.8%(37명) 늘어난 670명으로, 전남 5개 시(市) 가운데 가장 크게 늘었다. 하순 출생아 수도 지난해 171명에서 올해 194명으로 늘면서 '두 자릿 수' 성장세를 기록했다. 반면 전남 전체 인구는 180만4875명으로, 전년보다 0.7%(-1만3609명) 감소한 상태다.

나주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내걸고 임신·출산 정책에 힘을 쏟은 결과, 인구 증가율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말 기준 나주시 인구는 11만723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11만6205명)보다 0.9%(1033명) 늘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을 나타냈다.

나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출산장려금 6개월의 무거주 조건을 없애고, 주조사 등록 후 단 하루만 살아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원 액수도 크게 늘었다. 지난 7월부터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은 1000만원을 신생아 가정 양육비로 지원하고 있다.

출산 이후 가정에만 지원했던 가사 돌봄도 6개월 이후의 임신부 가정으로 확대했다. 지난 4월부터는 둘째 이상, 고위험군, 다태아 가정 등으로 제한했던 서비스 대상 문턱도 낮춰 모든 임신부에게 지원하고 있다. 또 '나주형 난임시술비'와 난임 조기진단, 난임 검진비 지원 제도를 신설해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다.

자녀 보육 기반시설을 확충한 점도 눈에 띈다. 나주시는 지난 9월 전남에서 처음으로 365일 시간제 보육실을 빛가람동의 한 어린이집에 개소했다. 내년 4월부터는 남평읍에서도 주말·공휴일 돌봄을 시행할 계획이다.

최근엔 산업단지 입주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나주에 취업한 청년(18~45세)이라면 보증금과 월 임차료 없이 최장 4년간 살 수 있는 '취업 청년 임대주택' 30가구도 공급했다. 30가구 가운데 2가구는 결혼 7년이 넘지 않은 신혼부부였으며, 3가구는 가족·친구 등과 함께 사는 형태로 입주했다.

'만원 아파트'를 처음 도입해 전국적인 관심을 끈 하순군은 한 달 새 전남 22개 시·군 중 20대 인구가 가장 많이 늘었다. 지난해 전남 전체 20대 인구가 358명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하순에선 20대 인구가 27명이나 늘어 6197명으로 집계됐다.

하순군은 올해 지역에 전입한 청년·신혼부부에 게 총 100호를 공급했으며, 앞으로 총 400호까지 공급 주택을 늘릴 방침이다.

강진군 역시 빈집을 새롭게 단장해 귀농·귀촌인에게 월 1만원 임차료(보증금 100만원)를 받아 공급하는 '만원 리모델링 빈집' 제도를 시행했는데, 1가구 모집에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강진군은 앞으로 귀농·귀촌인 22가구를 포함해 총 42채를 의지인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강진군은 또 자녀 1명당 월 60만원, 생후 84개월까지 최고 5040만원을 지급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을 제시하며, 젊은 인구의 유입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대구면 남호지구를 시작으로 전원주택 2000세대 건축을 시작하는 등 다양한 주거공간 조성사업도 벌이고 있다.

김대성 전남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절실함에서 다양한 인구 관련 정책이 나오고 있다"며 "인구 유입 효과가 확인된 정책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 지원제도, 생활인구·관계인구 유입책, 청년마를 집중 육성, 난임부부 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이 더 많이 발굴·시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올해 전남 출생아 수가 1년 새 100명 넘게 감소한 가운데 파격적인 출산장려금과 청년·신혼부부 주거 개선편을 내건 일부 자치단체들은 인구 증가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광주지역 한 산부인과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한국, 노인 소득 빈곤율 40% 넘는 유일한 나라”

OECD 연금 2023 보고서  
76세 이상 2명 중 1명 '가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이번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OECD가 국가별 노인 빈곤율을 공개한 2009년에 얻은 오명을 줄곧 떨치지 못하고 있다. 19일 OECD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 '한눈에 보

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소득 빈곤율은 평균 소득이 빈곤 기준선인 '중위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이다.

OECD 가입국 중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대에 달할 정도로 높은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한국 다음으로 높은 에스토니아(34.6%), 라트비아(32.2%)는 30%대를 지켰고, 일본(20.2%)과 미국(22.8%)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노인 빈곤율이 낮은 국가들은 아이슬란드(3.1%), 노르웨이(3.8%), 덴마크(4.3%), 프랑스(4.4%) 등 주로 북유럽이나 서유럽 국가들이었다.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더 악화됐다. 66세 이상 노인 인구 중 66~75세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31.4%인데 비해, 76세 이상은 52.0%로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층에 속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한·미·일, 北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한국과 미국·일본 군 당국이 19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warning data)의 실시간 공유체계가 가동에 들어갔다.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마치 한 몸처럼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가 현재 정상 가

동 중에 있다"며 "사전점검을 통해 완전 운용 능력이 검증됐다"고 밝혔다.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은 "중간 점검은 여러 차례 있었고 최종 점검은 지난 주 있었다"며 "어제 발생한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관련해서도 체계들이 운용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3국이 북한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

지 및 평가해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관련 능력을 향상하고자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연내 3국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가동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미일이 공유하는 정보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정보로 한정된다. 경보정보란 북한 미사일의 ▲ 발사 추정지점 ▲ 비행궤적 ▲ 예상 탄착지점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영화 '길위에 기대증' 광주서 첫 시사회	▶2면
전남 유자 농가 깊어지는 '한숨'	▶6면
KIA 김기훈, 레도에서 제구의 답 찾다	▶18면

### 「구광 풀플먼트서비스(유)」

「구광 풀플먼트서비스(유)」  
구광(주)의 그룹사로 각종 상품의 판매, 유통, 배송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 ☑️ 훈련내용 : 재택 사무직

\* 맞춤형 훈련은 채용을 전제로 한 훈련 과정이며, 업체에서 요구하는 근무능력 만족 시 훈련 종료 후 입사 가능

직무	훈련내용	근무조건	모집인원
재택 사무직	- 모니터링(주제별 데이터 수집 및 정리) - 전화상담(일용직 근로자 계약직 전환상담) - 업무배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시간(휴게시간 30분 포함) 09:30~14:00 또는 13:00~17:30(선택 가능) - 급여: 월 108만원(통신비 포함), 2024년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복리후생: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상해보험가입(본인, 가족대상), 경조사 지원 명절선물, 종합건강검진(1년 재직 이상), 구광캐시 적립/지급 - 고용형태: 12개월 계약(수습 3개월), 이후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 연장가능	10명

#### ☑️ 일정



- 서류 접수 : ~ 24.01.01(월) 20:00(이메일 제출)
- 면접 일자 및 장소 : 24.01.03(수) 광주디지털훈련센터 면접실
- 맞춤훈련 합격자 발표 : 24.01.03(수) 16:00 이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훈련기간 : 24.01.05(금)~24.02.05(월) 4주
- 훈련장소 : 광주디지털훈련센터, 통학 훈련(기숙시설 없음)
- 채용예정일자 : 24.02.07(수)

#### ☑️ 훈련생 특전

- 훈련비용 전액 국비지원(훈련비, 교재 등) 및 중식 제공
- 훈련수당 및 교통비 지급 (최대 월 334,000원)
- 식비(중식) 지원 - 훈련 중 상해보험 가입
- 훈련시간 : 10:00~16:45(2주 실무 통학훈련), 13:15~19:00(2주 재택 실습)

#### ☑️ 지원자격(모두 만족)

- 만 19세 이상 구직 등록장애인 또는 상이 등급에 해당되는 자
- 광주 디지털훈련센터에 통학하여 맞춤훈련 수강을 받을 수 있는 자
- 엑셀(기초) 등의 컴퓨터 활용 가능한 자 - 집에서 재택근무 환경을 갖출 수 있는 자

